

도 재난시 주택임차비 이자율 낮아진다

최은희 도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따라 개정안 시행... 연리 3~5%대에서 1~2% 수준으로 조정될 듯

전북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의 용자이율이 연리 3~5%대에서 1~2%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재난으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의원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지난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치게 높은 용자이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용자이율의 현실화를 주문해 이뤄지게 됐다.

3~5%인 현행 재난관리기금 용자이율은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율(2.72~4.75%)이나 내담비율(2.3~3.1%)보다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연리 1~2%가 적용되는 전라북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이나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 특히, 서민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고 이율은 오히려 피해도민들에게 이중의 피해와 부담을 강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청와대 국정감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이 정진석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1일부터 시행되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용자이율이 적용돼 피해주민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사업의 수혜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용자이율 하향조정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월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용을 통해 주택임차비용의 용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 및 3천만원 한도에서 80% 및 5천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도

다.

한편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55억 원 규모이며, 도 직접 사업 및 시군지원 형태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법인세 인상이 국민증세라는 새누리당 김광림, 얼굴 두껍다”

민주당 “인상분, 복지재원으로 쓰일 것”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 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증세라고 호도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고 비판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투자가 줄어들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 깎아줬더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이 우리 재벌들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다는 말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법인세를 인하해줬음에도 재벌들은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고 일자리 줄이고 투자 줄이기”라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비판했다. 또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은 투자가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어들 것이고 또 그것은 물건 값에 전가 될 것”이라며 “해외기업 국내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국민의당 “아버지 밝힌 정유라 비선실세 의혹 스스로 인정”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 자신의 부친 정은희 씨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쓴 데 대해 “이화여대가 정 씨에게 입학특혜를 제공하고 학칙을 개정해 출석률 대체해 학점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아버지가 대통령을 보좌했기에 대기업은 800억의 기금을 조성, 정유라에게 80억원을 지원, 그리고 한 달에 1억여원의 호화 훈련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을 보좌했던 아버지를 가진 딸에게는 돈·학벌·인맥·스펙 4가지가 뒤따랐고 이 4가지가 없는 흠수저들은 이를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국민의당은 더 이상 법과 원칙 위에 있는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정유라 “내 아버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보좌”

우상호 “송민순 회고록 내용보다 정유라의 자기고백이 훨씬 큰 문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의혹을 사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국제승마연맹(FEI) 홈페이지에 자신을 소개하는 가족란 코너에, 자신의 부친 정은희 씨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쓴 사실이 지난 21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은희 씨는 이른바 ‘청와대 정은희 문건’을 통해 청와대 공식차모도 아니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선실세’로 자폭했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자 딸 정유라는 자신의 부친을 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고백’한 셈이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 자신의 부친에 대해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보좌’라고 소개했다. 정씨는 이와함께 자신의 소속 학교로 ‘한국 이화여대’라고 기재했다. 정씨

가 자기소개란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일자는 지난 18일이었다.

정씨는 또 소속 클럽·팀명에 ‘한국 삼성팀(Team Samsung : Korea)’이라고 기재했다.

야당은 정씨의 뜻하지 않은 자기고백을 근거로 정치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 최고위’에서 “진실은 정은희가 박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작년 초 상당한 이슈가 됐지만 그때 정은희는 박 대통령을 보좌하지 오래됐고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이인 딸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했다. 이는 송민순 회고록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유라가 소개

란에서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관련 없다고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는 검찰에 특별수사팀 꾸려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할 중대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삼성 소속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라며 “삼성은 정권의 실제 비선실세를 알고 여기에 잘 보이며 거액의 기업 돈을 대서 편의를 봐줬다. 다른 승마 국가대표나 다른 유망주를 도왔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지만 유독 정유라만 위해 편의를 봐주고 비용을 대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소극적으로 권력에 밀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착을 위해 모종의 행동을 했다”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도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 비선 실세에 잘 보이며 이런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삼성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박지원 “조양호, 미르 기부 거부하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질러”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요구를 거절했다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제간에는 안중범 정책조정수석이 재벌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얼마씩 내라고 하며 그 앞잡이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이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운을 폈다.

이어 “모 재벌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더 내라고 했다” “내가 지금 정부 큰 프로젝트에 1,000억원 이상 썼고 미르재단에도 10억원을 냈는데 또 K스포츠재단에 10억을 내라고 하느냐”고 답변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자 안 수석이 그 자리에서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조양호 회장)직을 해임시켰다는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안 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례라고 한다. 문제는 우 수석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 수석 역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해임 문제에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중범 정책조정수석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회장 미르·K스포츠재단에 매출액과 비교해 적은 출연금을 내자 안 수석이 문체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www.kosca35.or.kr

도전과 개척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멈춤이 없습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라북도의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문건설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0대 회장단·운영위원·감사

회 장	이 광 한	(주)삼화토건	홍 대 근	(유)황토건설	김 태 경	(유)석파토건
부 회 장	송 영 석	(유)동양건설	박 성 식	(유)에스에스건설	조 공 섭	(주)삼일공사
운영위원	구 대 회	(유)한울건설	박 성 준	(유)반석기초건설	조 성 호	(주)일성건설
	김 국 원	(유)미루건설	박 찬 용	(유)성지토건	채 중 술	(주)금성산업
	김 동 수	(유)도곡건설	백 석 현	(유)산하조경	최 인 태	석금건설(주)
	박 병 규	(주)계림건설	이 동 준	(유)엘제이건설산업		
	박 병 택	(유)부광건설	함 양 호	(주)계림토건		
감 사	김 삼 문	(유)향림조경				